

한국-베트남 금융협력포럼 개최 결과

- 지속가능금융과 자본시장 발전을 주제로 「한국-베트남 금융협력포럼」 개최
- 베트남 중앙은행(SBV) 및 증권위원회(SSC) 면담을 통해 양국 금융시장·정책 동향 공유 및 협력 강화방안 등 논의
- 현지진출 금융회사 간담회를 통해 현지 영업현황 및 현안 관련 의견 수렴

금융위원회 이형주 상임위원은 9월 25일(수)~26일(목) 국내 금융회사 해외 진출의 핵심 파트너 국가인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를 방문하여, ❶한국-베트남 금융협력포럼, ❷베트남 중앙은행(SBV: State Bank of Vietnam) 및 증권위원회(SSC: State Securities Commission) 면담, ❸현지진출 금융회사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다.

베트남은 중국·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5% 이상의 경제성장률과 1억명에 달하는 인구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 우리 금융회사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이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우리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의 베트남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국-베트남 금융협력포럼

이형주 상임위원은 9월 25일(수) 지속가능금융과 자본시장 발전을 주제로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였다. 동 행사는 금융위원회, 베트남 중앙은행 및 증권위원회 공동 후원하에 한국 해외금융협력협의회가 베트남 은행전략연구소, 신한은행 등과 협력하여 공동 개최하였다.

- 1 -

부이 호앙 하이(Bui Hoang Hai) 베트남 증권위원회 부위원장도 축하사에서 이번 포럼이 양국 자본시장의 협력과 번영을 위한 더 큰 기회를 열어줄 것이며, 역사가 짧은 베트남 자본시장에 앞으로도 한국과 베트남 간 투자 확대를 통해 양국이 함께 성공하고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피력하였다.

이항용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은 환영사에서 베트남의 자본시장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음에 따라 양국의 긴밀한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 자본시장이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 온 과정을 서로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베트남 금융당국 면담

금융위원회 이형주 상임위원은 9월 25일(수) 베트남 중앙은행에 이어 26일(목) 증권위원회와 면담을 가지고 양국의 금융시장 동향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상호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9월 25일(수) 중앙은행과의 면담에서 팜 광 중(Pham Quang Dzong)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는 지속가능한 금융 추진, 금융의 디지털 전환, 부실 채권 정리를 포함한 효과적인 은행 감독방안 등 주요 정책과제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한국 측 지식과 경험이 베트남과 공유되기를 희망하였다.

이형주 상임위원은 한국도 상기 정책과제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례가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한국과 베트남 상호간에 금융회사 진출입을 확대하여 동반 성장하는 관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하였다.

- 3 -

이번 행사에는 팜 광 중(Pham Quang Dzong)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 부이 호앙 하이(Bui Hoang Hai) 베트남 증권위원회 부위원장, 이항용 한국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 등 양국 금융당국 및 금융시장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포럼 1부(08:30~11:35)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한국과 베트남의 금융 시너지'를 주제로 열렸다. 팜 광 중(Pham Quang Dzong)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는 개최사에서 최근 베트남 은행 부문은 산업별 환경·사회적 영향 평가 도입, 녹색여신 가이드라인 발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핵심과제로 삼아 추진 중이나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오늘 포럼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녹색채권·녹색여신 가이드라인, 한국의 ESG 공시기준 등 한국의 기후금융 대응현황을 소개하면서, 199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한국과 베트남이 이번 포럼을 통해 보다 미래지향적인 금융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항용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은 환영사에서 베트남 중앙은행이 지원하고 있는 모든 신용기관의 녹색금융 전환 추진은 베트남 금융산업의 장기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ESG와 녹색금융 지식 공유를 통해 한국-베트남 금융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후 이어진 2부(14:30~17:00) '자본시장 발전과 전환'에서 이형주 상임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최근 정책 및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한국과 베트남이 성장 모멘텀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은행대출 뿐만아니라 주식·채권 등 자본시장을 통해서도 기업이 다양한 수요에 맞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균형잡힌 금융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2 -

9월 26일(목) 부 띠 켄 프엉(Vu Thi Chan Phuong) 베트남 증권위원장은 작년 12월 한국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들을 초청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

이형주 상임위원은 베트남 증권위원장이 직접 한국 금융회사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 자본시장 부문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역내 가장 거래가 활발한 베트남 자본시장이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하며 면담을 마무리 하였다.

현지진출 금융회사 간담회

9월 26일(목)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하노이 스타레이크 지점을 방문해 은행·보험·여신업 등 8개 현지진출 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형주 상임위원은 간담회를 통해 베트남 금융시장 동향, 회사별 영업현황 및 현안, 금융당국에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고, 베트남 금융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 [은행(4)] 신한, 우리, 기업, 농협, [보험(3)] 한화생명, 삼성화재, 서울보증, [여신(1)] 롯데파인애플

※ [붙임1] 한국-베트남 금융협력포럼 프로그램
[붙임2] 국내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 현황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책임자	과 장	김윤희 (02-2100-2880)
		담당자	사무관	이다행 (02-2100-2891)
<공동>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책임자	센터장	장 민 (02-3705-6319)
		담당자	팀 장	백승은 (02-3705-6353)

- 4 -

제임1 한국-베트남 금융협력포럼 프로그램

☐ 일시/장소 : 9. 25.(수) 08:30~17:00 / 롯데호텔 하노이

□ 주제 :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 Enhancing Korea-Vietnam Financial Synergies

구분	세부내용
오프닝	
08:30~08:45 (15분)	개회사 Pham Quang Dzung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 축사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환영사 이항용 해외금융협력회의의 의장
세션 I. 은행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관리 및 실행	
08:50~10:10 (80분) * 주재당 20분 발표	베트남 금융산업의 ESG 현황과 발전방향 베트남 중앙은행 Pham Minh Tu 부위원장 글로벌 ESG 동향과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금융연구원 김경도 선임연구원 신한은행의 ESG 이니셔티브 신한베트남은행 이은하 부장, 김지현 차장 Agribank의 ESG 이니셔티브 베트남 Agribank ESG 이행위원회 Nguyen Thi Thu Ha 교육원장
세션 II. 녹색금융 혁신과 ESG 평가요소 사례금융	
10:30~11:30 (60분) * 주재당 20분 발표	신용보증기금의 녹색금융 및 ESG 평가 시스템 신용보증기금 김소현 선임차장 베트남의 ESG 이니셔티브 분석 KPMG Vietnam Truong Hanh Linh 본부장 탄소기차 평가모델을 통한 지속가능성 강화 기술보증기금 박한일 차장
11:30~11:35 (5분)	폐회사 서승현 신한은행 부행장

☐ 주제 : Capital Market Development and Transition Finance

구분	세부내용
오프닝	
14:30~14:45 (15분)	개회사 이형주 금융위원회의 상임위원 축사 Bui Hoang Hai 베트남 증권거래위원회 부위원장 환영사 이창용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
세션Ⅰ. 한-베 전환금융 로드맵	
14:50~15:30 (40분)	한국 자본시장의 지속가능금융 공시 및 배출시장 한국거래소 문희준 수석 Green Growth Action Plan Securities Market to 2030 베트남 증권위원회의 Vu Chi Dung 국장
세션Ⅱ. 한-베 자본시장 발전현황 공유 및 협력기회 모색	
16:00~16:40 (40분)	한국 자본시장 현황 및 제도 개선 경과 한국금융투자협회 오성만 부장 베트남 자본시장 발전현황 및 한국과의 협력기회 베트남 증권위원회 To Tran Hoa 부국장
16:40~17:00 (20분)	Q&A 및 폐회사

붙임2 국내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 현황

□ **(진출현황)**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전 등 40개 국내 금융회사가 53개의 현지점포를 운영 중('24.3월말 기준)

< 베트남 진출 한국 금융회사 현황('24.3월말 기준) >

업종		진출형태	세부현황
은행(20)		법인(4)	신한, 우리, 수은(리스금융), 광주(증권)
		지점(9)	국민(2), 기업(2), 하나(2), 농협, 부산, 대구(현 iM)
		사무소(7)	산은, 광주, 전북, 수은, 농협, 부산, 대구(현 iM)
보험(9)		법인(4)	한화생명, 신한라이프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화재
		지점(1)	서울보증
		사무소(4)	현대해상, KB손보(2), 삼성생명
금투 (16)	증권(8)	법인(7)	미래에셋, KB(2), NH투자, 신한, 한투, 한화
		사무소(1)	미래에셋
	자선운용(8)	법인(3)	미래에셋, 피데스, 한국투자신탁
		사무소(5)	KB, 골드브릿지, 우리, 키움, 피데스
여전(8)	카드(4)	법인(3)	롯데, 비씨, 신한
		사무소(1)	롯데
	캐피탈(4)	법인(3)	미래에셋캐피탈, 산은캐피탈, 롯데벤처스
		사무소(1)	JB우리카피탈

* 해외점포 : 지분율 50% 초과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를 포함하며 현지법인의 자회사, 자지점은 제외

□ (영업현황) 한국 금융사의 자산합계는 196.1억불*, 당기순이익 합계는 3.8억불** (23년말 기준)

* 은행 147.9억불, 금융투자 24.1억불, 보험 9.9억불, 비은행 14.2억불

** 은행 3.3억불, 금융투자 0.6억불, 보험 0.4억불, 비은행 △0.5억불

< 베트남 현지점포 영업현황 >

(단위: 억달러, %)

구분	'21년말	'22년말(B)	'23년말(A)	증감률((A-B)/B)
총자산	171.7	200.9	196.1	△2.4
당기손익	2.3	3.6	3.8	5.6

※ 한국 진입 베트남 금융회사는 없음